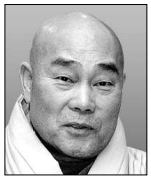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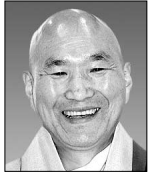
일주문



한마음 포교전진대회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은 2월 14일 덕산관광호텔에서 조계종 제7교구 '불자 한마음 포교전진대회'를 봉행했다.



정년 퇴직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은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마곡사에서 총명상가 박태이씨를 초청해 정년 퇴직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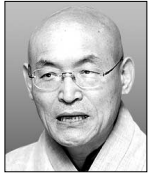
8교구 신도회 신년교례회 개최
김천 직지사 주지 성용 스님은 2월 19일 구미 도리사에서 신도회 임원들과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암도 스님 초청 법회
양양 낙산사 주지 정법 스님은 2월 21일 오전 10시 前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33)672-2447



노원사암련 사단법인화
서울 노원사암련협회 회장 선혜 스님은 2월 13일 정기모임을 열고 사암련 사단법인화 추진과 이사진 선임을 결정했다.



3·1절 기념법회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화제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을 초청해 3·1절 기념법회를 연다.(031)676-8700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이석원 원장은 2월 17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화'를 주제로 박영석 탐험대장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日 후쿠오카 산업대 교류교수로
조선대 미술학부 교원 교수는 일본 후쿠오카 산업대 교류교수차 2월 18일 출국했다. 교원 교수는 교토, 나고야 등을 순회하며 문화전시를 연다.



불교문화교류 학술포럼 개최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회장은 2월 22일 한성대 사회교육원에서 한·대만 불교문화교류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25차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김태준 소장은 2월 18일 동국대 덕암제미나실에서 제25차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마음 밝혀 자비광명 누리는 공부들...”

법전 스님 해인사 비로자나불 점안법회서 법문



해인사 비로자나불 점안법회에서 조계종정 법전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승은 비로자나 부처님 개금 복장 불사 회향 점안법회 및 광명법회를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2월 17일 해인사 보경당

에서 봉행했다. 조계종 정정 법전 스님의 증명하에 봉행된 법회는 찬불가, 육법공양, 영상으로 보는 경과보고, 법전 스님 법어, 감사패 및 표창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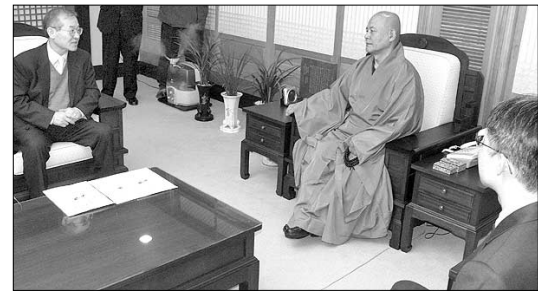
여,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 인사말, 연예인 이휘향씨의 발원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법전 스님은 이날 “두 비로자나 부처님의 눈을 점안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날 마음을 밝힌 자는 자비광명을 누릴 것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자성을 깨치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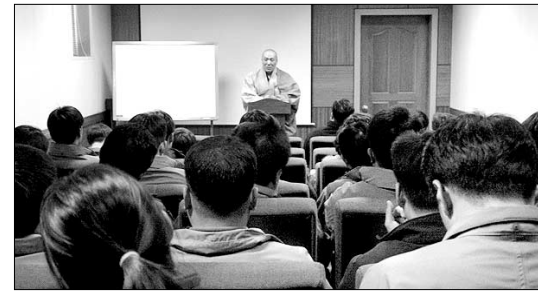
현승 스님은 “지난해 5월 개금 불사를 시작하고 6월 법보전 비로자나 부처님이 1200년 전 국내 최고의 목조 불상이 확인된 때로부터 무려 8개월 간 감격스러운 날을 보냈다”며 “모든 불자와 국민의 정성과 원력으로 빛낸 오늘날의 불사가 이 나라 이 땅에 크게 회향돼 남북이 평화통일되고 국운이 융창하며, 세계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한편 해인사는 점안법회 후 9월 21일까지 217일간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리를 찾아 떠나는 광명법회를 봉행한다. 합천=배지선 기자

종교자유연구원 임원 지관 스님 예방



공원직원대상 불교문화 이해 강연



박광서 준비위원장 등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 임원들은 2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종교자유를 해치는 위법적인 활동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건전한 종교문화화를 형성하는 활동을 펼쳐라”고 당부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2월 8일 지리산 국립공원남부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원관리 사무소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화엄사와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서는 공원 내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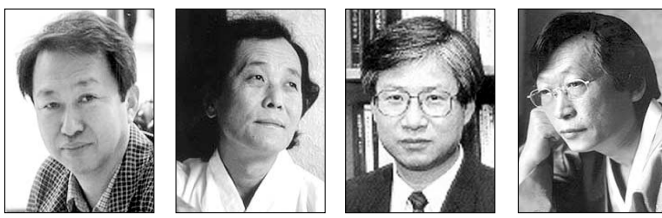
시-홍신선 교수

소설-조정래씨

평론-김인환 교수

특별상-윤금초씨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



홍신선, 조정래, 김인환, 윤금초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홍신선 교수(동국대 문예창작과), 소설 부문에 조정래 씨, 평론 부문에 김인환 교수(고려대 국문과)가 각각 선정됐다. 2006년 시조의 해를 기념해 시조 부문 윤금초 시조시인을 특별 수상자로 선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과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는 홍신선 시인의 연작시 ‘마음결’, 조

영 시인, 권영민 평론가, 최동호 시인, 탁연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수완 스님(현대불교문인협회장·계간 불교문예 편집인) 등이 맡았다.

시상식은 4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포장에서 열린다. 김지연 기자

부산 경남 포교사단 회장이·취임법회



조계종 부산·경남 포교사단은 2월 1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제4대 단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인 박근호 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반야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실천하며 어린이와 노인을 아우르는 포교활동으로 말보다는 행동하는 포교사단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제14회 삼광한글학교 졸업식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2월 13일 제14회 삼광한글학교 졸업식을 거행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졸업식에서 도원 스님은 “한글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넓게 마음을 쓰고 지혜를 얻어가는 첫 출발”이라며 “신행생활에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열린선원 기초과정 수료·수계식



서울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2월 15일 ‘열린선원 1, 2기 기초과정 수료 및 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6개월간 전주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김판순씨를 비롯해 기초과정을 마친 수료생 26명이 참석했다. 법현 스님은 “계율로 인해 깨달음에 더 가까워져서”라고 격려했다.

“애국가風 인재불사로 회향해요”

조부·부친 뜻이어 태영장학회 설립 김광호 법사



의 뜻을 인재 키우는 일로 꽃피우고자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조부와 부친의 합자를 딴 태영장학회를 만들고 3월 1일 김해 시

민공원에서 열리는 3·1절 기념행사에서 첫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 김광호(금화사 초등학교 교장·사진 법사) 김 법사는 조부인 김정태씨와 부친 김영숙씨의 합자에서 한자씩을 딴 태영장학회를 만들고 매년 김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2명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화사 초등학교 교장, 사단법인 등원 등에서 활동하며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왔던 김 법사

는 10년간 금화사장학회를 만들어 금화사 초등학교 졸업생에게도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기도 하다.

김 법사는 내년부터 자선사업가로 고종황제의 표창을 받았던 조부님 합자를 딴 태영장학회를 만들어 불자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생각이다. 천미희 기자

본사 남동우 기자 결혼

박측 본사 남동우 기자가 강신재 양과 2월 2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늘봄공원 4층 예식장에서 화족을 밝힌다. (남동우 010-3450-6310)

Large advertisement for Samcheon-bul Samcheon-bae participation, including details on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Buddhist Relief Association.